

KAIST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KAIST 개교 50주년 기념식

KAIST 50th INNOVERSARY Ceremony



COVER STORY |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KAISTian e-Newsletter February 2021

“KAIST는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이다.”
-〈터만 보고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2월 16일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KAIST는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유공자들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국내외 150명의 KAIST 동문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KAIST 50년으로 실현된 ‘터만 보고서’

참석자들은 식전에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오프닝 공연으로 인공지능(AI) 피아노와 인간 피아니스트(박중화 서울대 기악과 교수)의 협연을 감상했다.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이란 주제의 오프

닝 영상에서는 KAIST 50년의 역사를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영상에서는 “2000년까지 국제적 명성의 훌륭한 기술대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봉장이 될 것”이란 ‘터만 보고서’ 문구로 시작해서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란 신성철 총장의 포부까지 담았다.

KAIST는 1971년 서울 홍릉 연구개발단지에서 국내 최초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으로 시작했다. 1973년 석사과정 신입생 106명, 1975년 박사과정 신입생 21명이 입학한 데 이어 1978년 8월 1호 박사 양동열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등 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80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해 학교명을 현재의 KAIST로 변경했다. 1989년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하고 대전 대덕으로 이전해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갖춘 대덕 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50년간 박사 1만 4,418명을 포함해 총 6만 9,388명의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했다. 2000년대 초까지도 100위권 밖에 머물던 세계 대학 순위도 지난해 39위(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 발표)로 뛰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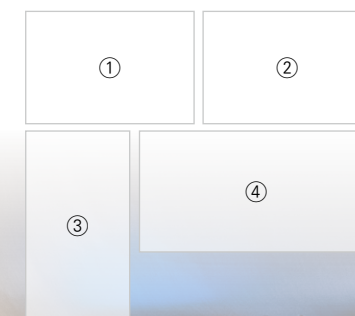
그동안 KAIST는 한국의 과학기술사에서 최초·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198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1990년 국내 첫 AI 연구센터 설립, 1992년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1995년 386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2002년 인간형 로봇(휴보) 개발, 2008년 한국 최초 우주비행사(이소연) 배출, 2009년 무선 충전 전기버스 개발, 2015년 세계 재난 로봇대회 우승, 2020년 사이배슬론 국제대회 착용형 로봇 분야 금메달 수상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개식 선언은 김우식 KAIST 이사장이 사이배슬론 금메달 수상자인 김병욱 선수와 함께했다.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영상으로 KAIST 개교 50주년 축하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KAIST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 박병석 국회 의장, 라파엘 라이프 미국 매사추세

츠공대(MIT) 총장, 클라우스 폰 클리칭 독일 막스플랑크 고체상태연구소장(198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5명이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KAIST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식 KAIST 이사장, 이상민 국회의원, 신성철 KAIST 총장(왼쪽부터).



- ① 개식 선언을 하고 있는 사이배슬론 금메달 수상자 김병욱 선수(왼쪽)와 김우식 이사장.
- ②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하를 하고 있다.
- ③ 정근모 박사가 터만 보고서를 들고 KAIST 50년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 ④ 식전 행사에서 로봇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가운데).



AI 피아노의 오프닝 공연



- | | |
|---|---|
| ① | |
| ② | ③ |
| ④ | |
- ① 김우식 이사장, 신성철 총장 등을 비롯한 KAIST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국내외 KAIST 동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② KAIST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신성철 총장.
 - ③ 개교 50년 기념 공로상을 받은 최현승 인문사회융합과학대 선임행정원(왼쪽)과 김길창 전 산학부 명예교수(오른쪽). 두 사람은 직원 대표와 교원 대표로 수상했다.
 - ④ 앞으로 50년간 빅데이터, 컴퓨터과학, AI,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의학과 생명과학의 변화를 얘기하는 주영석 의과학대학원 교수.

보내왔다.

이날 기념식에서 KAIST 설립을 국가에 제안했던 정근모 박사가 KAIST 설립 역사를 담은 터만 보고서를 신성철 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궈 낸 성공의 유산에 더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자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KAIST 미래 비전을 밝혔다. 그는 또 도전(Challenge), 창의(Creativity), 배려(Caring)의 C³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미래 전략 등 5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즉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리더를 배출하고, 연구 혁신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며 신학문을 개척해 나가고, 기술사업화 혁신으로 기업가정신 대학을 구현하며, 국제화 혁신으로 세계와 교량 역할을 하고, 미래 전략 혁신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박해원 기계공학과 교수, 염지현 신소재공학과 교수, 신기정 AI대학원 교수, 주영석 의과학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신진 교수가 차례대로 나와 ‘KAIST의 미래: 인류를 빛낼 100년’이란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펼쳤다. 로봇,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야를 각각 맡아 ‘과학기술로 변화되는 미래에 관한 상상’을 얘기했다. 끝으로 국내외에 있는 50인의 KAIST 동문이 드라마 ‘카이스트’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인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을 온라인으로 합창해 진한 감동을 전달하기도 했다.

KAIST의 50년으로 엮본 대학의 역할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이어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KAIST의 과거 반세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반세기를 준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KAIST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 토마스 로젠바움 총장,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조엘 메소 총장이 ‘미래 50년 대학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고 이어 ‘KAIST의 국제사회 기여’를 주제로 덴마크·미국·아랍에미레이트·영국·이집트·케냐·파키스탄 등 7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석해 KAIST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성철 총장은 다가올 50년, KAIST의 미래 비전과 혁신에 관해 발표했다. 신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대변혁의 시기로서 앞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트렌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KAIST는 이에 발맞춰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미래 전략 5대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실행 방안으로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10명의 특이점 교수(Singularity Professors) 배출,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는 10개의 데카콘 스타트업(Startups) 육성, 전 세계에 10개의 X-KAIST를 설립하는 ‘10-10-10 드림(Dream)’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배출하고자 기초 과학 분야에 최대 1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이런 전략은 모두 “KAIST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사명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것”



KAIST 신성철 총장과 칼텍 토마스 로젠바움 총장, ETH 조엘 메소 총장은 향후 50년 대학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 총장은 인류가 맞닥뜨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으며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응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로젠바움 칼텍 총장은 ‘대학, 과학, 사회’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로젠바움 총장은 대학, 즉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과학은 단지 규모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져야 하고 나아지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바움 총장은 “100년후나 1,0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연구를 지금 대학에서 해야 한다”며 “용기와 야망, 흔들리지 않는 학문적 가치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KAIST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조엘 메소 ETH 총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대학은 기후변화와 감염병 같은 초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학은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집단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TH는 대학의 10년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가치 토론회 ‘위싱크’를 열고 있다. 메소 총장은 “이런 시도를 통해 변화에 대처하는 대학의 민첩성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세계의 대학이 직면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대학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지도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학생들도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졌다. 세 패널들은 학생들과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대학, 평등한 대학을 위한 정책적 방안, 무거운 등록금과 생활비로 늘어나는 학생 부채 해결 방안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AIST 국제협력처장 임만성 교수가 ‘KAIST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임 교수는 198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인터넷 시스템 구축, 1990년 대한민국 최초 인공지능(AI)연구센터 설립, 1992년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성공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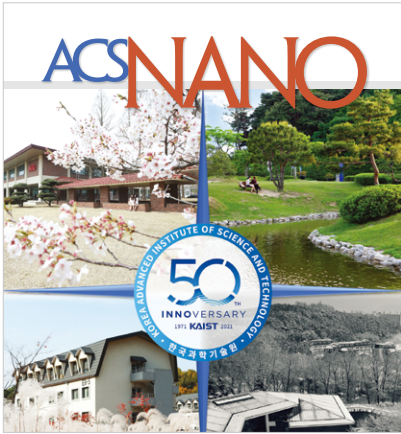
럼 우리나라 과학발전 역사 중 최초·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KAIST의 훌륭한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KAIST는 오늘날도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기후변화, 질병, 빈곤, 전쟁 같은 거대한 도전들을 해결하는 가교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7개국의 주한대사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학으로서 KAIST가 각국과 협력해 낳은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KAIST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우주 탐사, 신재생에너지 연구 같은 미래 과제 또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굳게 약속했다.

이번 KAIST 심포지엄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을 추구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인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다. 그 전환의 과정에는 언제나 KAIST가 앞서 있을 것이다. [KA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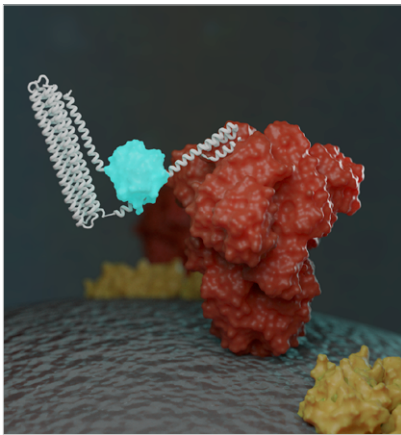
세계 7개국의 주한대사들은 저마다 KAIST와 협력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 KAIST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지 ACS Nano 특집호 발간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의 주도로, 나노과학 분야 권위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가 KAIST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집중 조명하는 KAIST 개원 50주년 기념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번 'ACS Nano' 특집호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이룩해온 KAIST의 50년 역사를 소개했다.

>> 더보기



+ 자연에 없는 고감도 단백질 센서 제작 플랫폼 개발

생명과학과 오병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워싱턴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해 고감도의 단백질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창출한 단백질 시스템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사용돼 여러 다양한 단백질 센서를 용이하게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더보기



+ 피부 땀 발생량을 뛰어넘는 고발습 피부 부착 유연 소재 개발

바이오및뇌공학과 조영호 교수 연구팀이 피부에서 발생하는 땀의 양을 뛰어넘는 발습 효과(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를 가진 다공성 폴리머 유연 소재와 제조공정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고발습 유연 소재는 표면에 생리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부착할 수 있어 상시 착용 가능한 피부부착형 패치에 사용될 수 있다.

>> 더보기



+ 무선 충전 가능한 부드러운 뇌 이식 장치 개발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의대 김정훈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뇌 완전 이식형 무선 광유전학 기기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무선충전이 가능해 이식 후 생체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터리 교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빛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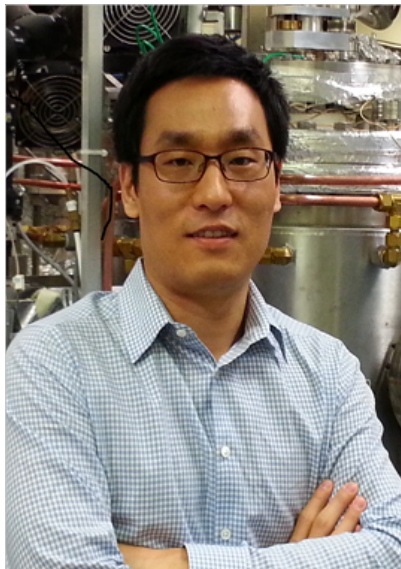
>> 더보기



+ 17대 총장에 이광형 명예교수 선임

KAIST 제17대 총장에 이광형(67세) 바이오및뇌공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이광형 신임 총장은 1985년 KAIST 전산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2월 현재 바이오및뇌공학과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산업 초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신임 총장은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해 'KAIST 벤처 창업의 대부'로도 불린다. 임기는 2월 23일부터 4년이다.

>> 더보기



+ '2020년 올해의 KAIST인 상' 등 총 24명 교원 시상

신소재공학과 신병하 교수가 '2020년 올해의 KAIST인'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교육, 학술, 국제협력 성과가 탁월하거나 KAIST의 위상에 크게 공헌한 21명의 교원에게 '개교기념 우수교원 포상 및 특별포상'이, 2명의 교원에게 '송암 미래 석학 우수연구상' 등이 수여됐다.

>> 더보기



+ 총동문회,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선정

KAIST 총동문회가 2020년도 'KAIST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를 선정해 2월 3일 발표했다. 이번 수상자는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4명이다.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은 1992년 제정해 지금까지 29회에 걸쳐 10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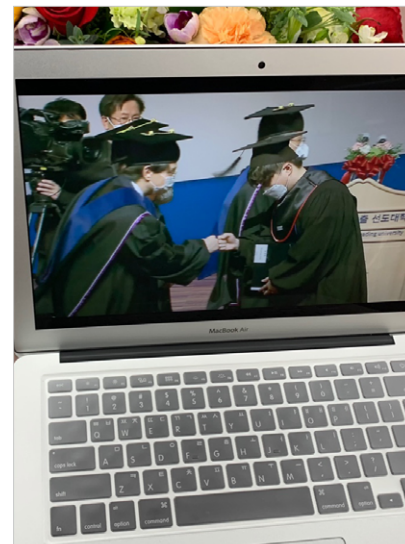
>> 더보기



+ KAIST 개교 50주년 기념 특집 다큐, <기술, 사람을 향하다> 방영

KAIST 개교 50주년을 맞아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세상을 진화시킨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KAIST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사람을 위한 공학'을 연구하는 KAIST인을 묘사했다. KAIST를 다룬 55회 <다큐온>은 2월 19일 방영됐다.

>> 더보기



+ 2021년 학위수여식 개최

KAIST가 2월 19일에 2021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사 668명, 석사 1,331명, 학사 713명 등 총 2,712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로써 KAIST는 지난 1971년 설립 이래 박사 1만 4,418명을 포함해 석사 3만 5,531명, 학사 1만 9,457명 등 총 6만 9,388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했다.

>> 더보기



+ KAIST연구원-(재)부산테크노 파크 업무협약 체결

KAIST 연구원과 (재)부산테크노파크가 2월 9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사단지에서 부산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의 연구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산의 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 더보기